

남원 막걸리 축제 3년 만에 열린다



2~3일 이틀간 승월교 요천 둔치
변사극 춘향전 등 풍성한 문화공연
막걸리 빨리 마시기·열린 음악회

“술 익는 저녁 당신과 함께.”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열리지 못한 '남원 막걸리 축제'가 2~3일 이틀간 승월교 아래 요천 둔치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남원 관내 13개 막걸리 업체 중 7개 업체가 참가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남원 맛의 술맛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일부터 4일까지 남원에서 열리는 제59회 전북 도민체전 기간과 맞물리는 만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했다.
먼저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인 전북 신나는 예

술 버스, 변사극 춘향전, 풍물조작단 등 지역 문화 공연이 행사 시작 전 흥을 돋울 예정이다.
또 '즉석으로 막걸리 빨리 마시기 대회'를 비롯한 막걸리 관련 이벤트가 진행되는 한편 남원 막걸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관과 다양한 플라마켓이 막걸리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끌 예정이다.
특히 3일에는 육종안 밴드, 헤이이, 최성수, 사이퍼, 첫사랑 등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남원시민 화합을 위한 춘향골 열린 음악회'도 열린다.
이 밖에 행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7개 업체의 막걸리를 무료로 시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신선한 남원 막걸리와 맛있는 안주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여름의 뒷자락에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남원 막걸리 축제에서 함께 맞이할 가을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북교육청 5층 교육감실에서 진행된 전북교육청-(사)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전북사회적기업, 협력체계 구축

공공구매 확대 등 논의 간담회

전북교육청이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확대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사)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양홍철 협의회장, 도내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사회적기업과 교육청이 함께 발전·상생하며 지역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내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사회적기

업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선순환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양홍철 협의회장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는 전북도 내 307개(인종 190개, 예비 117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치매안심마을 100가구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

13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

남원시가 치매안심마을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30일 남원경찰서·남원시의사회 등 13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치매안심마을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첫 행보로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노암동과 왕정동에 거주하는 독거치매와 부부치매환자 가정 100가구에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화재·사고·방범 등의 안전관리와 건강관리 등 24시간 돌봄으로 가정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남원시 CCTV관제센터의 통합플랫폼과의 연동으로 치매환자 실종 시 신속한 위치 확인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남원경찰서·남원시의사회 등 13개 기관·단체 대표들이 치매안심마을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24시간 돌봄과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봉준 장군 동상 조각가에 국경오 작가 선정

고창문화의 전당 앞 공원에 건립

고창군이 전봉준 장군 동상 조각가로 국경오 작가를 선정했다.
지난 4월 전국 작가 공모에 응모한 18명의 작가 가운데 1·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국경오 작가의 '의(義)의 깃발 아래' (사진)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 출신 전봉준 장군과 의를 위해 결연히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혁명성과 대중성을 형상화한 군상 조각이다. 전체 12인 군상으로 이뤄진 조형으로 먼저 선두에 전봉준 장군이 무장 포고문을 읽고 나서의 연한 자세로 앞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을 긴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 옆에 보국안민, 제복구민 등이 새겨진 커다란 깃발 아래 거사를 앞둔 농민군이 각자 비장하게 결의하는 모습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 동학농민혁명



의 정신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 작품이다.
동상 제작은 군민 성금 2억원과 군비 4억원을 더해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며, 역사 고증을 거쳐 고창문화의 전당 앞 공원에 세워질 예정이다.
국경오 작가는 익산 출생으로 원광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다수의 개인전 경력이 있는 구상조각가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부면 백운마을 백운화상 탄생지 기념비.

직지심체요절 저술 백운화상 기리는 문화행사

4일 내장산위터파크에서
주민·이주민 어울림한마당도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직지심체요절'을 저술한 백운화상(경한스님)을 기리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백운선사 불조직지심체 기념사업회(회장 대우스님)는 오는 4일 오전 내장산위터파크에서 제6회 백운화상 다례제와 함께 이주민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류 문명의 뿌리 세계문화유산 직지 저자이며 세계최초 금속활자본 발명가인 백운화상의 탄생지에서 스님을 추모하고, 다문화 이주민 노동자를 격려하는 행사이다.

기념행사와 함께 제1회 정읍-전북 연꽃백일장과 주민·이주민 어울림한마당도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37대 조계종 총무원장 당상자 진우스님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추진위원장 도제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백운화상 탄생지라는 긍지를 갖게 하고, 성지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불교전문문화 계승발전 차원에서 주민과 스님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에서 출생한 백운화상 경한스님은 1377년 선종(禪宗)역대조사(祖師)의 법맥과 어록 등을 간추리고 요약해 백운화상의 어록집을 집필했다. 백운화상 초록불초 심체요절은 세계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류문명의 발달에 업적을 남겼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14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고창군이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인구 과밀·과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읍·면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리·동·반을 정리(명칭·경계변경, 분리, 통합, 폐지, 설치) 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형이나 마을 여건상 분구 또는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로 신설,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 등의 지역개발로 생활권이 분리되는 지역 등이 주요 실행대상이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14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